

# | Ship's Bench |



# 바다 관련 영어 표기에 대한 소고(小考)

sea와 ocean 그리고 marine과  
maritime을 중심으로

| 김주식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joosik@hanmail.net

## 〈차 례〉

1. 문제의 제기
2. sea와 ocean
3. marine과 maritime
4. 번역상의 문제
5. 관례의 재고

## 1. 문제 제기

용어(term)는 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또한 용어는 인류가 사물, 자연, 현상, 인간의 활동과 행위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용어 사용의 주체는 인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는 개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개에 따른 역사성, 인류가 거주하는 장소의 지리적 특징, 화자(話者)의 의지 등이 내포되기 마련이다.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목적은 소재언어의 사용자가 원 용어에서 받은 인상과 의미 그리고 내용을 목표언어의 사용자가 똑같이 받

도록 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번역할 때 개인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면, 같은 용어가 다른 용어인 것으로 오해받기 쉽고, 결국에는 동문서답하는 꼴이 되어 의사소통과 지식 교류가 불가능해진다. 관련 정부기관이나 학회 등이 용어집이나 용어사전을 발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줄이고, 그로 인한 혼동과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부기관들도 이러한 용어사전을 발간해왔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 시기였던 2012년에 발간한 용어사전을 기반으로 2016년에 『해양수산용어사전』을 발간했다.<sup>1)</sup> 해군은 1964년에 『해군용어사전』을 낸 이후로 계속 증보와 수정을 거쳐 발전시켜왔다.<sup>2)</sup>

필자는 『해양수산용어집』과 『해군군사용어사전』(2007)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바다 혹은 해(海), 대양(大洋), 해양(海洋)의 차이가 무엇이며,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용어들을 명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sea와 ocean을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할 때에는 marine과 maritime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의 차이와 용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해양 관련 글이나 기관명 등을 영역할 때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확실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와 단어의 사용을 연구한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소고는 이러한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sea와 ocean에 이어서 marine과 maritime을 서로 대비시켜 주로 영어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고찰은

---

1) 2012년 3월에 발간한 것은 『국토해양 용어사전』인데, 국토해양부의 6실 1국이 정리한 것을 부서별로 모아 발간되었다. 이 사전에서 해양수산관련 용어를 제시한 곳은 1실 1국이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2/7를 그리고 분량별로는 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2) 1964년에 발간한 『해군용어사전』은 760쪽에 이르지만, 항목들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일반인들의 사용관례, 사전에서의 용례, 논쟁이나 논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추세 등을 다루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들을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로 관련 용어사전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밖의 단상(斷想)을 표현하려 한다.

## 2. sea와 ocean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바다 관련 용어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바다 - [명사]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짙물이 꺾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
- 해(海) - [접사 '바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명사] 나라에서 신성시하여 가뭄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던 바다, [명사]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 대양(大洋) - [명사] 세계의 해양 가운데에서 특히 넓은 해역을 차지하는 대규모의 바다
- 해양(海洋) - [명사] 넓고 큰 바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권(水圈)으로, 태평양·대서양·인도양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대해(大海) - [명사] 넓고 큰 바다. 거해(巨海)와 대영(大瀛)의 동의어<sup>3)</sup>

---

3)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바다를 한자로 표기할 때에는 주로 海나 洋을 사용한다. 洋은 바다와 대해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바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명사이다.<sup>4)</sup> 해(海)는 명사로 사용될 경우 역사성을 보유한 특정 바다와 성씨의 하나를 의미하며, 접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바다를 지칭하는 접미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녀(海女)에서처럼 접두어와 대해(大海)에서처럼 바다를 한자로 표기하는 명사로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해양은 바다 중에서 넓고 큰 것을, 대양은 해양 중에서 특히 넓은 해역을 가리킨다. 대양, 해양, 대해는 거의 동의어에 가깝다. 그런데, 바다는 모두 넓고 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넓고 크다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한해협과 현해탄은 해협(海峽)과 탄(灘)으로 모두 좁은 바다를 의미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부산(釜山)-쓰시마(對馬島), 쓰시마-이키시마(壹岐島), 이키시마-아이노시마(藍島)의 해역을 3개의 대해(大海)로 간주했었다.<sup>5)</sup> 그러므로 넓고 크다는 규모상의 기준을 적용할 때, 바다, 해, 대양(대해)이 해양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영사전에 따르면, 바다와 해양 및 대양은 모두 sea나 ocean으로 번역된다. 영영사전에 따르면, sea는 바다, 파도, -해(海)로 그리고 ocean은 특히 미국의 경우 대양, 바다, -양(洋)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영국 영어에서는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 sea이다. 미국 영어에서는 보통 ocean을 쓴다.”<sup>6)</sup> 그러므로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에서는 sea와 ocean이 동일어로 간주되며, 다만 미국에서는 ocean을, 영국에서는 sea를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4)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 민중서림, 1961)에는 큰 호수나 늪 등을 이르기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5) 김주식·김소형,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부산 : 국립해양박물관, 2017), p. 25.

6) Naver 영어사전과 한영사전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endic.naver.com>

이에 대한 논의는 외국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sea와 ocean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ocean의 크기가 sea보다 더 크고, sea는 육지 근처에 있거나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ocean으로 흐른다. 요약하면, ocean이 육지와 만나는 곳에 sea가 위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sea가 ocean의 일부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sup>7)</sup> 이러한 논의 결과는 대체로 미국 상무부의 해양대기관리처(NOAA) 산하 미국해양청(National Ocean Service)의 다음과 같은 견해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sea는 ocean의 주변부에서 보이며, 부분적으로 육지로 둘러싸여 있다. ... 많은 사람이 ocean에 대해 말할 때 ocean과 sea를 호환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두 용어는 지리학에 대해 말할 때 차이가 있다. sea는 ocean보다 더 작고, 항상 육지와 ocean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sup>8)</sup>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sea가 ocean으로도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둘러싸인 한 수역(水域, 일반적으로 세계양世界洋의 한 일부)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고 있다.<sup>9)</sup> 다시 말하면 sea는 대개 대형 염수계로 간주되지만, 흔히 ocean과 관련되는 아주 광활한 염수계를 의미하고 또한 보통 ocean과 동의어로 사용된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지질학과 해양학을 기반으로 한 정의와 용법이다.

서양의 사전에서 sea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논의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어원학 사전<sup>11)</sup>에 따르면, 고대 영어에서 “물바다, 바

7)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sea and an ocean?”(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www.quora.com/What-is-the-difference-between-a-sea-and-an-ocean#MoreAnswers>

8)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n ocean and a sea?”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oceanservice.noaa.gov/facts/oceanorsea.html> 이 사이트는 Bering Sea가 Pacific Ocean의 일부인 것을 예로 들고 있다.

9) “sea”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sea>

10) “Ocean vs. Sea” (2019년 3월 26일 검색), [https://www.diffen.com/difference/Ocean\\_vs\\_Sea](https://www.diffen.com/difference/Ocean_vs_Sea)

11) Online Etymology Dictionary, sea(n.) & ocean(n.) (2019년 3월 7일 검색),

다, 호수, 못”을 뜻하는 sæ는 게르만 조어(祖語) saiwa에서 유래하지만,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1200년부터는 “어떤 것의 다량(多量)”이라는 의미로도 또한 1660년대부터는 “달 이면의 어두운 지역”이라는 의미로도 각각 사용되었다. 게르만어는 sea와 lake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 언어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발트 해 연안의 지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두 용어는 게르만어에서 다소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반대의 의미로도 사용(고트어에서 saiws는 호수와 늪지대를 의미하나, 네덜란드어 zee는 바다를 그리고 meer는 호수를 의미한다.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의 sær는 바다를, 덴마크어의 sø는 호수를 뜻하지만 구어로는 바다를, 게르만어 See는 남성형일 때에는 바다를, 여성형일 때에는 호수를 의미한다.

한편 ocean은 지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큰 강이나 바다를 지칭한다. 그런데 광대한 대지가 Eurasia와 Africa만 알려졌던 초기에는 ocean이 그 주변을 흐르는 끝없는 강을 의미했으며, 1650년까지 흔히 ocean sea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각 수역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부터였다.

이처럼 어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sea가 ocean보다 더 일반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의 언어에서 나타났다. ocean이 대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부터였으며, 14세기부터 1650년까지는 ocean sea이나 sea ocean처럼 sea와 함께 사용되다가 1650년 이후에 ocean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학계가 역사적 원리를 바탕으로 발간한 사전을 참고하면, sea와 ocean의 의미와 용례는 다음과 같다.<sup>12)</sup>

---

<https://www.etymonline.com/word/sea>

12) Sir James Augustus Henry Murray, A new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

sea

1. a) 지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계속 이어지는 염수역(鹽水域)  
b) 대해, 대양(예 : ocean sea, sea of ocean)  
c) 흔히 땅과 더불어 지표면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표현(예 : sea and earth, on sea or land)  
d) ocean의 서로 다른 부분이나 지대, 종종 단순 해역(waters)을 의미  
e) 다소 의미심장하게 해군작전, 해운업, 선원의 직업과 고용, 선상생활 등에 사용  
f) 속담이나 비유에 사용  
g) 공해 또는 외해(high sea) - 해사재판소(courts of admiralty)의 관할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다, 어느 한 국가의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으로 모든 국가가 무해통항
2. a) 육지의 한계가 있거나 특정 해안에 밀려오는 또한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염수역의 일부 (예 : North Sea, Mediterranean Sea)  
b) 영국을 4면으로 둘러싼 4개의 바다  
c) 전에 물로 덮여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달 표면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명칭
3. 염수든 담수든 육지로 둘러싸인 대형 호수나 못(예 : Caspian sea)
4. 조수의 간만과 관련하여 고찰되는 바다에서 물의 양(예 : dull sea = high tide)
5. 거친 파도나 평온한 파도, 놀(swell)의 존재나 부재 등의 별칭

---

founded mainly on the materials collected by the Philological Society, volume VII, London : Philological Society, 1837-1915.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archive.org/details/newenglishdictio3murruoft>



6. 염수(salt water), 격렬한 바다(bitter sea), 바닷물(sea-water)
7. 항해, 파도 등과 관련한 은유적 표현이나 어떤 것의 엄청난 양이나 질량
8. 어떤 물질적 재료의 대규모 평탄지역이나 사물의 합계
9. 유대교 사원의 큰 돛대야

#### ocean

1. 육지로 둘러싸이고 지표면에 있는 광대한 수역(水域). 1650년에는 흔히 ocean sea를, 1400년 이전에는 sea ocean이나 sea of ocean을 사용. ocean이 형용사로도 사용
2. 광대한 수역이 지리를 나눈 주요 지역이나 영역 중 하나. 이것은 주로 땅의 일부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자연적인 나눔이고, 일부는 지리적 편의에 따른 임의적 나눔다
3. 어떤 것의 엄청나거나 한없는 확장, 아주 크거나 무한한 양
4. 단순한 속성(하이픈을 흔히 사용), 자연적인 관계의 물리적 관계에 있는 대양의 혹은 그 대양과 관련된 것

위의 인용문은 sea가 ocean보다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반대로 ocean의 의미는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기관인 해양대기청의 공식 명칭은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이며,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해양을 ocean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영토 주변의 바다가 대서양과 태평양이고, 우측 남쪽에 카리브 해가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2년에 제정된 유엔 해양법의 공식 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해양을 ocean이 아닌 sea로 표현했는데, 이

는 세계에 대양, 해, 내해가 많아 미국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지리적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는 ocean보다 sea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은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Horizon 2020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의 일환으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sea와 ocean을 구분하여 병기하였다.<sup>13)</sup>

### 3. marine과 maritime

해양을 영어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단어가 marine과 maritime이다. 영한사전에 따르면, marine은 형용사이자 명사이다. 형용사로는 ‘바다의, 해양의, 배의, 해상의’의 뜻이며 명사 앞에서만 사용하고, 명사로는 ‘해병대’의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영한사전에는 영영사전에 marine이 바다나 바다에 사는 동식물과 관련된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 maritime은 “바다의, 해양의, 배의, 바다에 접한”의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영한사전에는 영영사전에 maritime이 “바다나 선박과 관련된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고 첨언되어 있다. 즉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단지 marine에는 ‘해병대’라는 명사가 그리고 maritime에는 ‘바다에 접한’이라는 의미가 더 있는 점만 다를 뿐이다.

이 두 용어는 라틴어의 바다를 뜻하는 mare(여성형)와 marinus(남성

---

13) 유럽연합(EU Commission)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개년 계획으로 “Blue Growth: Unlocking the Potential of Seas and Oceans”을 용역으로 발주했다. 2019년 3월 4일 검색,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news/blue-growth-unlocking-potential-seas-and-oceans-2>

형)에서 유래했다. 이 용어가 ‘바다의’라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은 1551년부터였고, ‘상선과 함대’ 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669년부터였으며, ‘해병’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690년대부터였다.<sup>14)</sup> 언어학계가 역사적 원리를 바탕으로 발간한 사전을 참고하면, sea와 ocean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sup>15)</sup>

### marine 형용사, 명사

#### 형용사

1. 바다의, 바다에 속하는 ; 바다에 존재하거나 발견되는 ; 바다에 의해 생산되는, 외해에 살고 있는
2.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에 적용되는
3. 해신, 물고기 등의 조각상의
4. a) 해양 주제를 그리는 화가의  
b) 바닷가에 속하는, 바닷가에 위치한, 바다로 둘러싸인  
c) 작전, 운영 등 바다와 관련이 있는, 해운이나 해군에 속하는, 해군 문제와 관계가 있는

#### 명사

1. 한 국가의 해운선단·함대·해군·해군복무, 선박으로 대표되는 해난차입금이식(maritime interest), 국적이나 선급과 관련된 원양선의 집단적 표현
2. 영국 해군성에 상응하고, 해군 문제를 다루는 프랑스와 다른 대륙정부들의 한 부처

14) 김성준, 『海事英語의 語源』(서울 : 문현, 2015), pp. 339.

15) Sir James Augustus Henry Murray, *A new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 founded mainly on the materials collected by the Philological Society*, volume VII, London : Philological Society, 1837-1915.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archive.org/details/newenglishdictio03murruoft>

3. a) 화물선에 근무하는 사람, 선원
- b) 군함에서 근무하는 병사, 화물선과 공창 및 그런 상황 하에 있는 해안에서 존재하는 군부대 (복수는 집단을 지칭)
- c) 해병대를 지칭하는 관용구, 불신을 표현하는 구어체
- d) 빈 병을 지칭하는 은어
- e) 선원 작업에 무지하고 서투른 사람을 지칭하는 항해 은어, 풋내기, 풋내기 뱃사람
- f) 그림, 해경화(海景畵)
- g) 명사 앞에서 한정용법으로 쓰이고 조합해서 사용

### maritime 형용사와 명사

#### 형용사

1. a) 국가와 민족의, 해상에서 승선하는, 해안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 b) 동물의, 식물의,
- c) 바다 가까운 곳에서 살거나 발견되는
2. 항해 상업 등에 관해 바다와 관련 있는, 상업이나 해상항해 등의 문제에 관해 혹은 그 문제를 다루는
3. 전투부대의, 바다에서 근무할 의도가 있는
4. 바다에 속하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바다에 존재하는
5. 선원 특유의, 항해의

#### 명사

1. 해안, 바다와 인접한 국가나 지역
2.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

이 두 용어의 용법도 서양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이다. 예를 들면 2001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 논쟁에 참여한

영국 북동부의 사우스 타인사이드 대학(South Tyneside College)의 한 교수(Capt. Brian Mathias)의 주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arine	maritime
바다와 관계가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형용사	바다와 관련이 있거나 바다에서 실행하는 사물이나 행동과 관계있음을 의미하는 형용사
바다와 직접 관계가 있는	바다와 관련된 것들과 관계가 있는

이에 대해 한 일반 시민(Louis Cohen)은 marine이 ‘ocean과 관련이 있으며, 배에서 근무하는 병사와 해안을 통해 공격하는 훈련을 받은 병사’를 뜻하고, maritime이 ‘해상교통(ocean transportation), 선박, 주정과 관계가 있는’을 의미하기 때문에 maritime이 marine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sup>16)</sup>

그런데 2014에는 유럽연합이 지침(EU Directive)으로 해양공간계획(Maritime Spatial Planning)을 채택했으며,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Maritime Spatial Planning과 Marine Spatial Planning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한 교수(Linda Rozanne Harris)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의미론의 문제나 본질적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자문했다. 그녀는 Marine Spatial Planning이 생태계와 그와 연관된 상품과 서비스의 장기지속성을 위한 ocean에서의 활동에 대한 더 나은 공간 구성을 포함하며, Maritime Spatial Planning은 환경지속성과의 연계를 배제하면서 ocean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단순히 더 나은 구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개 이 두 가지가 혼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교가 없다고 부언했다. 이 논쟁에서는 두 가지가 차이 없이 교환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도 있었다(Andrej Abramic).<sup>17)</sup>

16)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ine and maritime?”, 2019년 3월 7일 검색, <https://www.quora.com/What-is-the-difference-between-marine-and-maritime>

같은 해에 marine과 maritime의 용어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주장들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분	marine	maritime
일반견해1	ocean의 물리적 영역과 그것의 생물자원을 묘사	선박, 해운, 조선 또한 이것들과 연관된 활동을 묘사
일반견해2	군대와 관련	민간해운과 관련
일반견해3	sea에 있거나 sea에 속하는	sea와 관련되거나 관계가 있는 어떤 것이나 사람
사전	항해와 상업과 연계된 sea와 관련이 있는 해양동물, 해도 제작, 해사고등교 육훈련 실시와 관련있는	광의 : sea의, sea와 관계가 있는 특수 : 해운, 항해, 법, 해사 (naval affairs) 와 관련이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상안전 사상자, 해양사고, 선박 기관사, 해상보험, 해양위락, 해양포유동물, 해양생태계	선박 안전, 해양사고, 해양경계, 해양포유동물
유럽	해양전략프레임워크지침(MSFD), 해양공간계획(MSP)	통합해양정책(Integrated maritime policy), 해양공간계획(MSP), 수송 같은 이슈
유럽 - 동시 사용	Marine and Maritime Science and Technology Forum, Marine and Maritime Institute(Southampton)	
북아메리카	수송 같은 이슈	
학술지 - 구분	해양생물, 해면어업,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조류학, 해양화학, 해양생태학	해사, 해양경제, 해상물류, 해양위험, 해양탐사
학술지 - 동시 사용	법(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and The Maritime Lawyer), 정책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and Marine Policy), 산업(Marine Industry Profile : Germany, France, UK, USA, Global and Maritime Risk), 탐사(Maritime Research and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국제해양개발위원회 (ICES)	marine reach - ocean과 sea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의 한 분파 (동물과 식물, 연안지역과 대기와의 상호작용 포함)	maritime research - ocean과 sea의 자원 개발 기술 및 해결책

17)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ritime spatial planning'?",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www.researchgate.net/post/What\\_is\\_the\\_difference\\_between\\_marine\\_spatial\\_planning\\_and\\_maritime\\_spatial\\_planning](https://www.researchgate.net/post/What_is_the_difference_between_marine_spatial_planning_and_maritime_spatial_planning)

다음 해인 2015년 1월에는 캐나다 사법부(Ministère de la Justice)가 홈페이지에 이 두 단어의 사용법을 프랑스어로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동의어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marine은 ‘바다에 속하는 것, 바다에서 사는 것, 바다에서 발견되는 것’을 지칭하며, 따라서 ‘바다와 관련하여’ 볼 때 marine이 maritime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maritime은 ‘해안과 관련되는 것, 바다에 근접해 있는 것, 바다에 예속된 것, 해군이나 함대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두 단어의 용례 140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marine의 용례가 71가지이고 maritime의 용례가 69가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8)</sup>

marin, marine.	maritime
침식abrasion, 공기lair, 해초algue, 분위기 ambiance, 동물animal, 환경atmosphère, 생물독소biotoxine, 미풍brise, 해도carte, 먹 이사슬chaîne alimentaire, 화학chimie, (바 다 근처의) 묘지cimetière (qui est situé près de la mer), 기후climat, 좁아지는 입 구col, 공동체communauté, 나침반compas, 조개껍질coquille, 부식corrosion, 흐름 courant, 퇴적물dépôt, 디젤기관diesel, 생태 학écologie, 생태계écosystème, 환경 environnement, 침식érosion, 종류espèce, 개발exploitation, 동물상faune, 농지ferme, 식물상flore, 건너기franchissement, 지질학 géologie, 지구물리학géophysique, 두루미 grue, 도구instrument, 무척추동물invertébré, 쌍안경jumelles, 등전lampe, 리외(4km)lieue, 포유동물mammifère, 한기운데milieu, 마일 mille, 연체동물mollusque, 괴물monstre, 모 터moteur, 유기체organisme, 공원parc, 현 상phénomène, 발pied, 송유관pipeline, 식 물plante, 물고기poisson, 오염물질polluant,	전문학교académie, 행동action, 활동activité, 소송사건affaires, 요인agent, 공기lair, 중재 arbitrage, 병기고arsenal, 보험assurance, 보험업자assureur, 선행bien, 운하canal, 선 대(船臺)chantier, 기후climat, 기후학 climatologie, 법률code, 상업commerce, 회 의conférence, 선하증권connaissance, 컨 테이너conteneur, 계약contrat, 신용 créance, 선언déclaration, 범법행위délit, 권 리droit, 학교école, 교육enseignement, 침 식érosion, 탐험expédition, 전문가expert, 동물상faune, 식물상flore, 요정génie, (해군 장병을 환대하는) 병원hôpital (réservé aux marins et aux officiers de marine), 저당 hypothèque, 등록inscription, 법원juridiction, 입법législation, 기상대météorologie, 담보 설정nantissement, (강 항해와 대립되는) 항 해navigation (par opposition à la navigation fluviale), 운용opération, 낚시 pêche, 낚시터pêcherie, 소나무pin, 식물 plante, 플랫폼plate-forme, 오염pollution,

18) “MARIN OU MARITIME ?” (Ministère de la Justice), 2019년 3월 7일 검색, <https://www.justice.gc.ca/fra/pr-rp/sjc-csj/redact-legis/juril/no79.html>

오염pollution, 깊이profondeur, 방사선생물학radiobiologie, 방사선생태학radioécologie, 유보조항réserve, 침적물sédiment, 퇴적작용sédimentation, 소금sel, 재난sinistre, 지면sol, 독소toxine, 해진transgression, 횡단traversée, 파도vague, 바람vent, 유출ver, 염전 사이의 두렁갈vie.	항구port, 도지사 préfet, 특권privilège, 지방province, 권력puissance, 무선표지radiobalise, 무선등대radiophare, 지역région, 잡지revue, 위험risque, 안보sécurité, 재난sinistre, 영토territoire, 교통trafic, 수송transport, 공사travaux, 법정tribunal, 용도usage, 식물végétation, 도시ville, 길voie
--	---

이와 같이 볼 때, marine과 maritime에 대한 사전상의 정의는 거의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며, 사전이 오히려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나아가 동전의 양면인 두 용어가 일상 대화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환적 사용은 정신분열증에 가깝다고 주장한다.<sup>19)</sup>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을 미루어 볼 때, 대체로 marine은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바다를 표현할 때 그리고 maritime은 인문사회학적 입장에서 바다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경향을 어렵게나마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나 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그 증거이다. 캐나다 사법부가 두 단어의 용례를 140가지나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직도 관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번역상의 문제

『해양수산용어사전』에 따르면, 해(海, sea)는 “대양의 한 부분으로 육지에 접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독특한 해양학적 특성을 지닌 바다”

19) L. P. Hilderbrand & J. -U. Schröder-Hinrichs, “Maritime and marine: synonyms, solitudes or schizophrenia?”, WMU Journal of Maritime Affairs, October 2014, Volume 13, pp 173-176. 2019년 3월 4일 검색,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3437-014-0072-y>



이며, 해양(海洋, ocean)은 “5대양으로 구분, 작은 규모로는 지중해·통해·베링해 등”을 뜻한다.<sup>20)</sup>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ocean을 해양으로 번역하고, 해를 해양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사전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바다는 한자로 해(海)로 표기되며, 크고 작은 모든 바다를 모두 지칭하는 통칭명사이다. 대양(大洋)은 크고 넓은 바다를 의미하며, 5대양을 가리킨다. 해양은 ‘바다 해(海)와 ‘큰 바다 양(洋)’이 합쳐진 단어(海+大洋)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양에서는 바다(海)를 지칭하는 sea와 대양(大洋)을 뜻하는 ocean이라는 단어가 있다. 해양(海洋)에 해당하는 용어는 없다. 중세 말 - 근세 초의 시기에 사용된 sea ocean, ocean sea, sea of ocean의 표기가 우리말의 해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해보지만, 자신이 없다. 여하튼 번역상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해양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가하는 데 있다.

1996년 8월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 영어로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로 번역되었는데, 직역하면 해양수산부가 아닌 해사수산부(海事水産部)이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합쳤기 때문에 두 기관을 상징하는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영문 표기는 해사와 수산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동격의 단어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2008년 2월에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에 다시 설치되었을 때에는 한글 명칭은 같았으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바뀌었다.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영문 명칭은 직역하면 대양수산부(大洋水産部)이다. 따라서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이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20) 『해양수산용어사전』, pp. 72와 74.

한글 명칭인 해양수산부는 자체의 임무와 활동 내용을 표현하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은 지리적 개념이고, 수산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의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언뜻 보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을 담당하는 부의 이름인 것 같아 보인다. 백번 양보하여 해양과 수산을 병렬로 놓아 해석한다 해도 해양이라는 해역과 수산활동을 담당하는 부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수산활동은 강, 호수, 바다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물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을 뜻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강과 호수를 제외한 바다만 관장한다. 따라서 수산이 아닌 해산(海産)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수산뿐만 아니라 해안, 도서 항만, 해상교통, 바다에서의 여가활동, 해운해사, 해상치안 등에 관한 업무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조선업과 같은 산업 활동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해군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해양부(海洋部)라는 명칭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표기를 보면, ocean과 fisheries가 같은 유형의 명사가 아님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ocean에는 활동의 개념이 없고 지리적 개념만 있을 뿐이다. 또한 『해양수산용어사전』에는 ocean에 sea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동해(east sea)와 서해(yellow sea)를 ocean 즉 대양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여기에서도 양보하여 ocean에 sea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해도, fisheries는 바다에서의 인간 활동 중 일부를 지칭할 뿐이다. ocean과 유사한 유형의 단어는 sea, river, lake 등의 지리나 해역을 지칭하는 것들이고, fisheries와 유사한 유형의 단어는 aquaculture, marine affairs, shipping, navigation 등 인간 활동을 지칭하는 것들이다. 해양수산부의 영문 명

칭에는 서로 격이 맞지 않는 두 단어가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나열식으로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양부를 영역한 Ministry of Sea and Ocean이나 Ministry of Sea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양수산용어사전』과 『해군군사용어사전』에는 sea, ocean, marine, maritime의 단어가 포함된 항목들이 많지 않다. 『해양수산용어사전』은 총 1134개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영문 표기가 병기되어 있는 것이 824개로 약 72.7%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sea가 들어있는 용어는 19개, ocean은 8개, marine은 6개, maritime은 13개이며, 4가지 단어가 들어 있는 용어의 총수는 46개(전체의 4%)뿐이다. 또한 『해군군사용어사전』은 2478개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영문표기가 병기된 용어가 2347개로 94.7%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sea가 들어있는 용어는 25개, ocean은 5개, marine은 5개, maritime은 8개이며, 4가지 단어가 들어 있는 용어의 총수는 44개(전체의 1.8%) 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별첨의 표들과 같고, 각 용어별로 번역할 때 사용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용어	사전	의미	사용 분야
sea	『해양수산용어사전』	해, 해양, 해상, 해저, 물	통칭, 지리, 지명, 과학, 어류, 영토, 법, 안전, 시설, 선구
	『해군군사용어사전』	해, 씨, 해양, 해상	지리, 지역, 항구, 항해도구, 법, 치안, 방어, 보급, 자연
ocean	『해양수산용어사전』	해, 양, 해양, 대양	통칭, 지명, 과학, 어류
	『해군군사용어사전』	해, 대양	과학, 선단, 선박, 수송
marine	『해양수산용어사전』	해양	과학, 환경, 교통
	『해군군사용어사전』	해양, 선(船), 해병	선박, 동물, 해병
maritime	『해양수산용어사전』	해상, 해사, 해법	해운해사, 항해, 법, 교통, 안전, 교육, 정보
	『해군군사용어사전』	해양, 해상, 해사	해운해사, 비행기, 작전, 군사력, 전략

먼저 의미를 분석하면, sea의 의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해, 해양, 해상이고, ocean의 경우에는 해와 대양이다.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번역되는 의미는 해와 해양이다. 다른 점은 해수부가 sea를 해저와 물의 의미로까지 넓혀서 사용하고, ocean을 해양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marine의 의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해양이고, maritime의 경우에는 해상과 해사이다.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특이한 것은 해군이 marine을 해사와 해법에까지 그리고 maritime을 해양수산부가 법에 대해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용 분야별로 보면, sea의 공통적인 사용 분야는 지리학과 법이고, ocean의 경우에는 과학이다. marine의 공통적인 사용 분야는 없으며, maritime의 경우는 해운해사이다. 특이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marine을 환경과 교통에 그리고 maritime을 항해, 교통, 안전 등에 그리고 해군이 작전, 군사력, 전략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부와 기관별로 보면, 해양수산부는 sea와 ocean을 모두 해와 해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군은 해의 의미를 공통으로 사용하되, sea를 해양으로만 ocean을 대양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marine을 해양으로 또한 maritime을 해상, 해사, 해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군은 marine과 maritime을 해양의 의미로 사용하되, marine에 대해서는 선박과 해병 그리고 maritime에 대해서는 해사의 의미로까지 사용한다.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자. 『해양수산용어사전』에는 북극해가 Arctic Ocean으로 그리고 남극해가 Southern Ocean로 번역되어 있다. 이 두 해역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는 달리 양(洋)이 아닌 해(海)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개의 바다를 5대양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5개의 바다를 모두 대양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해로 번역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 이처럼 5대양 중에서 북극과

남극 주변의 대양은 해로 부르고 있으며, 나머지 3개는 모두 양으로만 불린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전에 따르면, 남극해와 북극해는 남빙양(南氷洋)과 북빙양(北氷洋)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가 아닌 양으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남빙양은 Southern Ice Ocean으로 번역되지 않고 Antarctic Ocean이나 South Pole Ocean으로 번역하고 있다. 북극양은 Arctic Ice Ocean나 Northern Ice Ocean이 아닌 심지어 North Pole Ocean도 아닌 Arctic Ocean으로만 번역되고 있다.

지리와 지형에 대해서 보면, 바다의 산을 지칭하는 sea mounts는 해산(海山)으로(『해양수산용어사전』), 바다의 계곡과 분지를 뜻하는 ocean trouge과 deep ocean basin은 해곡(海谷)과 심해분지(深海盆地)로(『해군군사용어사전』) 각각 번역되어 있다. 바다의 산과 계곡 그리고 깊은 바다가 sea와 ocean에 모두 존재하지만, 영어 표기 자체가 sea와 ocean를 혼용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sea wall과 sea embankment는 조류를 막는 제방인 방조제(防潮堤)로 번역되어 있고, sea-wall은 호안(護岸)으로도 번역되어 있다.(『해양수산용어사전』) 그러나 이 사전에는 방조제가 tide embankment로, 방파제(防波堤)가 breakwater, sea bank, sea wall로도 불리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호안이 shore protection과 bank protection으로도 불리는 것도 생략되어 있다.

해상교통은 maritime traffic으로 또한 전자고속도로는 marine electronic high way로 번역되어 있다(『해양수산용어사전』). 교통과 정보 관련 용어는 maritime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marine을 사용하고 있다.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는 선가(船架)는 marine railway로 번역되어 있다(『해군군사용어사전』). 선박과 관련된 용어에는 maritime이 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marine이 사용되어 있다.

그밖에도 ocean floor를 대양의 의미를 살려 해양저(海洋底)가 아닌 대양저(大洋底)로 표기하고 있어(『해양수산용어사전』) 표기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또한 바다에서 사용하는 닻을 지칭하는 sea anchor는 물닻(『해양수산용어사전』)과 해묘(海錨)(『해군군사용어사전』)로 번역되어 있어 혼동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4개의 단어(sea, ocean, marine, maritime)를 사용하는 데, 영어는 물론 우리말에서도 명확한 원칙을 말하기가 어렵다. 어렵듯한 윤곽은 보이지만, 일상생활과 학계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관행적인 용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5. 관례의 재고

바다와 관련이 있는 용어들(바다, 海, 海洋, 大洋, 大海, 巨海, 大瀛 등)은 우리나라의 각종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영어권에서도 바다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sea, ocean, marine, maritime 등)은 비슷한 상태에 있다. 영어권에서는 용어의 차이나 구분 혹은 용례에 대해 논쟁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며, 정부기관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어사전, 영한사전, 한영사전, 『해양수산용어사전』과 『해군군사용어사전』 등과 같은 사전류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바다를 지칭하는 우리의 용어 중 바다(海)는 바다의 통칭명사이고, 대양은 바다 중에서 코고 넓은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대해, 거해, 대영으로도 불린다. 해양은 근래에 나타난 용어로서 해와 대양의 합성어인 것으로 보인다. 해는 영어에서 sea에 그리고 대양은 ocean에 해

당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해양을 바다의 통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해양에 상응하는 용어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번역상의 어려움을 야기되는 첫 번째 원인이다. 영어권 지역에서는 sea를 ocean의 주변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sea를 바다의 통칭명사로 간주하는 주장과 바다를 통칭할 때 sea와 ocean을 병기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ocean을 해양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ocean이 sea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다를 지칭하는 형용사인 marine과 maritime의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어권 지역에서 명확한 구분 원칙이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marine이 자연과학적 성격으로 그리고 maritime인 사회인문학적 성격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어렵פות하게 보이지만, 교환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이 두 용어의 구체적인 용례 사례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용어의 번역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우리말 명칭과 영어 명칭은 혼란상과 문제가 축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은 해운, 해사, 항만, 항해, 해상 치안, 해상 안보 등 바다에서의 다양한 인간 활동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크고 작은 바다를 통칭하는 지리적 용어이다. 수산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 중 하나의 특정 분야일 뿐이다. 그러기에 해양수산부라는 명칭은 해양에서의 수산업을 관장하는 부의 명칭처럼 보인다(한편, 수산업은 물에서의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데, 강과 호수는 국토부의 관할 영역이다). 해양을 대양과 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생각하는 해양수산부의 인식은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바다(동해, 서해, 남해)와 바다에서의 다양한 인간 활동(해운, 항해, 치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단점은 영어 명칭에서 더욱 확연하

게 나타난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는 해역을 지칭하는 지리적 용어인 ocean과 바다에서의 인간 활동 중 한 분야를 지칭하는 fisheries라는 성격이 다른 두 단어를 and라는 접속사를 매개로 병기해놓고 있다. 따라서 마치 대양에서의 수산업을 관장하는 부의 명칭처럼 보인다. 영어 명칭에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와 인간의 다양한 해상 활동에 대한 의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해양수산부를 해양부로 개칭하고, 영문 명칭도 Ministry of Sea and Ocean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군의 용어사전은 sea, ocean, marine, maritime의 용어를 번역할 때 원칙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일반인은 물론 해양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혼동하기 쉽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경우에는 전례를 찾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바다가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우리 국민이 대양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지가 더욱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계가 용어 문제를 중시하여 관련 용어의 개념 설정과 우리말화 작업의 진행을 등한시했다는 점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학계의 반성이라는 점에서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서 해양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관련 용어에 대해 담론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려는 소고(小考)일 뿐이다.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들의 해양관련 용어의 의미와 용례 그리고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호 영향 등은 앞으로 있을 담론이나 논고에서 다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별첨> 『해양수산용어사전』의 용례

sea	ocean	marine	maritime
<p>해역 sea area 국제해양개발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영해 territorial sea 유엔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취수해역 deep sea water intake area 해 sea 해리 sea mile 해수기둥 sea water column 동해 East Sea 지중해 Mediterranean (Sea) 카리브 해 Caribbean Sea 베링 해 Bering Sea 해양심층수 deep sea waters 해저산 sea mounts 물뿔 sea anchor 소건물 dited seafood 심해어 deep sea fish 해양인명안전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방조제 sea wall, sea embankment 평균해면 mean sea level 호안 sea-wall</p>	<p>대양어 ocean floor 해곡 ocean trough 해양 ocean 남극해 Southern Ocean 북극해 Artic Ocean 대서양Atlantic Ocean 인도양 Indian Ocean 태평양 Pacific Ocean</p>	<p>해양생명공학 marine biotechnology 해양원격탐사 marine remote sensing 해양천연물화학 marine natural product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전자해양고속도로 marine electronic high way 해양환경전문가그룹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 Environment Protection</p>	<p>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국제항로포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 House Authorities 국제해법회 International Maritime Committee 국제해사국 Internationala Maritime Bureau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해상유해물규칙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세계해사대학 World Maritime University 유럽해사안전청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해상난민지원시스템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해상위험물 maritime dangerous goods 해상항해정보서비스 maritime navigation and information service</p>

『해군군사용어사전』의 용례

sea	ocean	marine	maritime
<p>                     근해 high seas                      공해자유권 freedom of high sea                      공해합동작전 Air Sea Joint Operation                      내해 inland sea                      내해력 sea worthiness                      해상수송사령부 Military Sealift Command                      시파워긴 sea power 21                      심해 deep sea, abyssal sea                      해산 sea mounts                      심해잠수 deep sea diving                      양륙함 seaport of debarkation                      해면오반사 sea cluster                      해모 sea anchor                      해상감시 sea surveillance                      해상교통로 sea lanes(lines) of communications                      해상방어구역 sea defence zone                      해상보급 replenishment of sea                      해상상태 state of sea                      해상제대 sea echelon                      해상제대구역 sea echelon area                      해양거부 sea denial                      해양력 sea power                      해양우세 sea superiority                      해양통제 sea control                      해표 sea buoy                      해풍 sea breeze                      핵심해양 vital sea areas                 </p>	<p>                     대양선단 ocean convoy                      대양수송 ocean going                      transportation                      선박이적목록 ocean                      manifest                      심해분지 deep ocean                      basin                      해류 ocean currents                 </p>	<p>                     신가 marine railway                      해양포유체계 marine                      mammal system                      해병 marine                 </p>	<p>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대특작부대작전 maritime counter-special                      operation force                      해상초계기 maritime patrol airplane                      해상항공지원작전분식 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 center                      해양력 maritime power                      해양작전 maritime operation                      해양전략 maritime strategy                      해양차단작전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                 </p>

## 〈참고문헌〉

- 『국토해양 용어사전』 (국토해양부, 2012)
- 『해양수산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12)
- 『해군용어사전』은(대한민국 해군, 1964)
- 『해군군사용어사전』(대한민국 해군, 2007)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19년 2월 24일 검색 ),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 민중서림, 1961)
- Naver 영어사전과 한영사전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endic.naver.com>
- 김성준, 『海事英語의 語源』 (서울 : 문현, 2015).
- 김주식 · 김소형,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 (부산 : 국립해양박물관, 2017).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sea and an ocean?”(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www.quora.com/What-is-the-difference-between-a-sea-and-an-ocean#MoreAnswers>
-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n ocean and a sea?” (2019년 3월 6일  
검색),<https://oceanservice.noaa.gov/facts/oceanorsea.html>
- “sea”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sea>
- “Ocean vs. Sea” (2019년 3월 26일 검색),  
[https://www.diffen.com/difference/Ocean\\_vs\\_Sea](https://www.diffen.com/difference/Ocean_vs_Sea)
- “sea(n.) & ocean(n.)”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19년 3월 7일 검색),  
<https://www.etymonline.com/word/sea>
- Sir James Augustus Henry Murray, A new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 founded mainly on the materials collected by the Philological Society, volume VII, London : Philological Society, 1837-1915.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archive.org/details/newenglishdictio03murruoft>
- “Blue Growth: Unlocking the Potential of Seas and Oceans” (EU Commission) (2019년 3월 4일 검색),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news/blue-growth-unlocking-potential-seas-and-oceans-2>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ine and maritime?” (2019년 3월 7일 검색), <https://www.quora.com/What-is-the-difference-between-marine-and-maritime>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ritime spatial planning?’” (2019년 3월 6일 검색), [https://www.researchgate.net/post/What\\_is\\_the\\_difference\\_between\\_marine\\_spatial\\_planning\\_and\\_maritime\\_spatial\\_planning](https://www.researchgate.net/post/What_is_the_difference_between_marine_spatial_planning_and_maritime_spatial_planning)
- Ministère de la Justice(Canada), “MARIN OU MARITIME ?” (2019년 3월 7일 검색), <https://www.justice.gc.ca/fra/pr-rp/sjc-csj/redact-legis/juril/no79.html>
- L. P. Hilderbrand & J. -U. Schröder-Hinrichs, “Maritime and marine : synonyms, solitudes or schizophrenia?”, WMU Journal of Maritime Affairs, October 2014, Volume 13 (2019년 3월 4일 검색),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3437-014-0072-y>